전북대 송철규 교수팀

심뇌혈관 질환 조기 탐지기술 개발

미래부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28억 7천 정부 지원받아 나노바이오 포토닉스 융합기술 개발

전북대학교 송철규(사진) 교수팀(공대 전자공학부)이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기초연구실지원사업(BRL) 신규 과제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정부로부터 최대 6년 동안 28억7천만 원을 지원받아 2023년까지 염증성 혈관 질환 조기 진단을 위한 나노바이오 포토닉스 융합기술 개발에 나선다.

염증성 혈관 질환은 식생활 변화와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과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위중한 질환을 야기한다. 그러나 조기 진단과 효율적 치료가 어렵고 타 장기 질환에 비해 미개척 분야가 많아 이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송 교수팀은 염증성 심뇌혈관 질환(암)의 고감도 조기진단이 가능한 나노바이오 포토닉스 융합기술을 개발하고(표적조영제, 기능적 이미징기술, 체외진단융합), 중개연구(동물모델링)를 통한 기술검증으로 새로운 조기진단 기술을 제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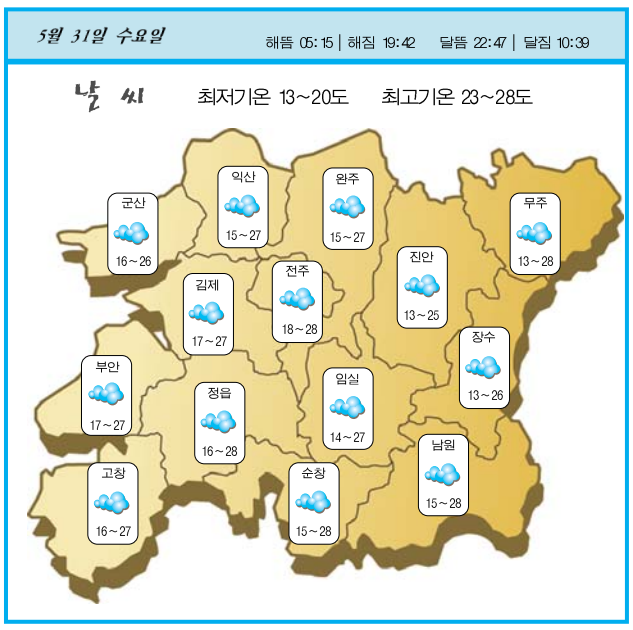
송철규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고 고분자 신약개발 분야 우수 연구자인 이동원 교수(BIN융합공학과)를 비롯해 오종현·정진무 교수(공대 나노바이오기계시스템공학) 등이 함께 참여해 융·복합 연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참여 교수들은 '나노바이오 포토닉스 융합연구실'을 구축해 송철규 교수가 다중 융합 영상시스템, 이동원 교수가 기능성 조영제, 오종현, 정진무 교수가 고감도 바이오센서 기술 등을 각각 개발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융·복합, 다학제 연구를 통해 형광 및 광음향 융합 진단장치 개발과 염증표적 조영제 개발 등 체내·외 진단 기술을 확립하고, 염증성 심뇌혈관질환 조기 탐지기술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정해은 기자

이달의 시내버스 친절기사 전주시는 지난 29일 전주시장실에서 '이달의 시내버스 친절기사 시상식'을 개최하고, 3월과 4월의 전주시내버스 친절기사로 선정된 김인수·김종구·박영길(성진여객), 정병문·김태헌·황인선(전일여객), 공승섭(호남고속), 박상열(시민여객) 등 친절기사 8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매년 발생하는 학생들의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야간 자전거 통학 학생의 안전을 위해 야간반사광 1578개를 고등학생 중 자전거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보급했다.

또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지난 29일 은빛중학교를 시작으로 30일 동암고, 6월 8일에는 남원고에서 실시한다.

도내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6월 5일부터 16일까지는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학교 자체별로 경찰서나 자전거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학부모에게 안전한 자전거 타기 협조 '가정통신문 발송'과 학생들의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홍보물 배포', 안전모, 팔꿈치·무릎 보호대 등 안전장구 착용 중점교육 및 미착용자 지도 등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교과와 연계하여 안전교육 51차시 교육 시 반드시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실시와 월요일 첫 수업 전 '5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경찰청 등과 협조해 자전거 통행로 개선 등과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특수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숙자)은 지난 29일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2017년 완주특수교육 담당 교원 역량강화 연수로 '특수교육 대상자 성교육을 위한 방법론 및 성교육 교구재 만들기' 1회연수를 실시했다.

성교육 전문가 과정 교사연수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우주(소중한 우리 몸의 주인은 바로 나)성문화인권센터 권노은 강사를 초정하여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성교육 실제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성교육 교구재를 활용하여 학급에서 직접 장애학생들과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업내용과 성교육 수업에 투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 교구재(소중이와 소망이, 사춘기의 몸의 변화)를 만들어 봄으로 학교현장에서의 교사가 직접 쉽고 재미있는 성교육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연수였다.

박 교육장은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교육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소중한 교육이며 특히 성교육에 대한 교사 역할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장애학생 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연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정해은기자

우리는 이웃사촌, 공동체시대 함께 연다!

전주시,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 통해 사람의 도시 만들기 집중

전주시가 올 한해 약해진 공동체의식 회복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 육성에 주력키로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온두레공동체(마을형, 소규모 창업형)와 아파트 공동체, 원도심 지역발전 계획수립 공동체, 생생마을만들기 공동체(농촌형) 등 4개 분야에 걸쳐 약 80여개의 공동체를 발굴 지원한다.

먼저, 빠른 도시화로 개인주의 삶이 보편화되면서 최근 우리 주변에서 예전의 돈독했던 이웃의 정을 느끼며 생활하기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 민선 6기 출범 이후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온두레공동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온두레 공동체 사업에는 67개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9일 온두레 공동체 사업 협약서 전달식과 5개 분과 10개 모둠 워크숍을 갖고 '소통하는 이웃,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3년차 온두레 공동체사업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다. 선정된 67개 공동체들은 앞으로 전주시 곳곳에서 마을 벽화골목 조성, 생태하천 가꾸기, 마을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신문 제작, 책읽는 마을 조성 등 주민주도의 환경개선사업과 마을소통 공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아파트공동체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이라는 특수한 거주형태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공동체사업으로 자연스럽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공동체에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체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는 한편,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온두레공동체 및 아파트 공동체 참여 주민들을 위한 주민학교 운영으로 공동체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교육 등 컨설팅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대학 입시정보 설명회 6월 잇따라 열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8학년도 대학 입시정보 설명회를 내달 중에 잇따라 개최한다고 밝혔다.

6월 10일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수도권 주요대학(연세대, 고려대) 입시정보 설명회가 열린다.

다음날인 11일에는 전라북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전북권 5개 대학 입시정보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어 17, 18일에는 서울 주요대학 입시정보설명회가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오전 11시부터 열린다.

서울시립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국기술교육대, 서강대(이상 17일), 건국대, KAIST, 한양대, 서울과학기술대, 경희대(이상 18일) 등 10개 대학이 참여하며 모집요강 및 수시·정시 지원전략을 안내해 준다.

/정해은 기자